



Built to Lead

즉시 배포용: 7/11/2016

주지사 앤드류 M. 쿠오모

**쿠오모 주지사가 보험사들이 임신부와 출산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오늘 앤드류 M. 쿠오모 주지사는 금융서비스부(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에서 보험사들이 임신부와 출산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지침을 발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침 서신](#)에서, DFS는 건강보험사들에게 산모 우울증을 진단받은 여성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생명 보험과 장애 급여 보험을 적정하게 인수할 책임에 대해 고지했습니다. 뉴욕 주 보험법하에서, 보험사는 산모 우울증 등의 정신 장애에 대한 과거의 치료를 이유로 해서 보험증서의 발행이나 갱신을 거절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보험사는 오로지 이전에 우울증을 진단받았다는 점만을 이유로 해서, 부보 금액이나 유형을 제한하거나, 동일한 부보범위에 대해서 서로 다른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산모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뉴욕 주민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절하는 보험회사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점이 보험회사들에 고지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주에 거주하는 임신부와 출산 여성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보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을 돕게 됩니다.”

금융서비스부 책임자인 마리아 T. 벌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FS는 현재 또는 과거에 산모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보장하는데 계속 전념합니다. DFS는 이전에 이미 건강보험사들에게 일체의 고용주 부담금, 일부 부담금 또는 자기 부담금 없이, 임신부와

출산 여성에 대한 우울증 검사를 보험 부보범위에 포함시키도록 지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 보험 및 장애 급여 보험 보험사들이 산모 우울증이 있는 여성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이러한 개혁조치를 강화합니다.”

이 새로운 명령은 단체 또는 개인 건강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사들이 일체의 고용주 부담금, 일부 부담금 또는 자기 부담금 없이, 임신부와 출산 여성을 위한 우울증 검사 등과 같은 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한 DFS의 2016년 4월 25일자 지침에 뒤따른 것입니다.

오늘 발표된 지침에서는 산모 우울증이 관련되는 생명 보험이나 장애 급여 보험의 인수가 실제로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손실 경험과 합리적으로 관련되는 건전한 인수 및 보험 통계 원칙에 기초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DFS 책임자인 벌로가 보험사들을 감사할 수 있다는 점 또한 보험사들에 고지되었습니다.

리즈 크뤼거 주 상원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책 지침은 산모 우울증을 경험한 여성들에게 추가적인 중요한 보호조치를 제공합니다. 뉴욕 주가 산모 우울증의 검사 및 치료에 대한 장애가 제거되고, 치료를 받는 여성들이 보험사로부터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이와 같이 종종 검진이 미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성들이 누릴 권리가 있는 검사와 치료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건강 보험상의 장애에 직면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DFS와 협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뉴욕 주 의회 보건분과위원회 의장인 리처드 고트프라이드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누구도 혼자서 우울증에 직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책을 통해서, 쿠오모 주지사는 산모 우울증 및 산후 우울증을 겪으면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임신부와 어머니들이 필요로 하는 정신 건강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품질 높은 보험 서비스 이용 권리를 향상시키고, 매일매일 가족들이 직면하는 실생활 문제에 대한 또 다른 중요 해결책을 다시 한 번 제공한 그의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미국 정신의학 협회 회장 마리아 A. 오켄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주자들의 정신 건강 상태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조치를 취한 점에 대해서 DFS에 찬사를 보냅니다. 정신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보험이 자신의 질환으로 인해서 취소되거나 갱신 거절될 것이라는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국립 모성 보건원 원장 안드레아 밀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완비된 건강 보호가 뉴욕 전반에 거주하는 여성과 가족들에게 현실적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품질 높은 예방적 정신 건강 보호를 필요로 하고, 마땅히 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뉴욕 주의 임신부와 출산 여성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한 DFS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성의 목소리 높이기(Raising Women’s Voices)의 뉴욕 디렉터인 루이즈 어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산모 우울증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생명 보험이나 장애 급여 보험을 거절하거나 취소하려고 시도하는 보험회사들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한 것에 대해서 금융서비스부에 찬사를 보냅니다. 산모 우울증은 새로 엄마가 되는 여성들에게는 너무나 공통적인 경험입니다. 이것은 효과적으로 검진해서 치료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해서 여성들이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생명 보험을 상실하거나, 그들이 누릴 권리가 있는 장애 보험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뉴욕 주 금융서비스부에서 보험사들에 보낸 지침 서신의 사본은 [여기](#)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 주 | 이그제큐티브 챔버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